

축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오리)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부분 발췌

축산업 생산액은 200년 8조 8백억 원에서 2010년 17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8.0%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은 2000년 25.3%에서 2010년 41.9%로 증가하였다. 2010년 축산

업 생산액 중 한육우는 27.8%, 돼지는 30.5%, 우유는 9.7%, 육계는 12.3%, 계란은 7.7%, 오리는 7.5%를 차지하였다.

표 26-1.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비중

단위: 10억 원(경상가격),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	31,968	35,089	35,232	34,685	38,470	41,364	41,677
축산	8,082	11,767	11,676	11,277	13,593	16,484	17,471
한육우	1,879	3,148	3,274	3,478	3,548	4,095	4,863
우유	1,352	1,551	1,521	1,551	1,604	1,738	1,693
돼지	2,372	3,759	3,609	3,320	4,085	5,473	5,323
육계	821	1,113	1,330	1,028	1,429	2,023	2,146
계란	651	1,085	867	854	1,159	1,359	1,341
오리	474	649	648	582	1,154	1,232	1,306
기타	533	462	427	465	614	563	799
축산/농업	25.3	33.5	33.1	32.5	35.3	39.9	41.9
한육우/축산	23.2	26.8	28.0	30.8	26.1	24.8	27.8
우유/축산	16.7	13.2	13.0	13.8	11.8	10.5	9.7
돼지/축산	29.3	31.9	30.9	29.4	30.1	33.2	30.5
육계/축산	10.2	9.5	11.4	9.1	10.5	12.3	12.3
계란/축산	8.1	9.2	7.4	7.6	8.5	8.2	7.7
오리/축산	5.9	5.5	5.5	5.2	8.5	7.5	7.5
기타/축산	6.6	3.9	3.7	4.1	4.5	3.4	4.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표 26-2. 축종별 사육 마리수와 산지가격 전망

축종	품목	2011	2012	2017	2022
한육우	사육 마리수(만 마리)	295	279~289	253~258	249~250
	한우 지육가격(원/kg)	12,782	11,630~12,069	12,739~13,040	13,612~13,617
낙농	사육 마리수(만 마리)	404	413	409	389
	생산량(만톤)	189	192	190	185
돼지	사육 마리수(만 마리)	758	884	975	999
	지육가격(원/kg)	5,808	4,669	4,495	4,652
산란계	사육 마리수(만 마리)	6,134	6,290	6,538	6,592
	산지가격(원/특란10개)	1,361	1,170	1,204	1,345
육계	사육 마리수(만 마리)	8,424	8,718	9,359	9,682
	산지가격(원/생체kg)	1,857	1,729	2,037	2,283
오리	사육 마리수(만 마리)	1,224	1,296	1,398	1,478
	산지가격(원/생체3kg)	7,527	6,000~6,200	7,569	8,326

주: 1) 2011년은 추정치이며, 2012년 이후는 전망치임.
 2) 한육우 및 젖소 사육 마리수는 해당 연도 12월 1일자 기준이며, 이의 축종의 사육 마리수는 연평균임.

◎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동향

■ 사육 동향

- 오리고기 소비증가로 오리 사육 마리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1% 증가하였다. 2011년 오리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1,236만 마리였으며, 이중 종오리는 155만 마리였다.
- 2011년 초 발생한 HPAI로 상당수의 종오리가 매몰 처분되면서 2011년 사육 마리수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3월 오리 사육 마리수는 857만 마리로 감소하였으나, 6월 1,522만 마리로 급격히 증가한 이후 9월 1,293만 마리, 12월 1,274만 마리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 F1 종오리 입식이 금지되면서 기존의 F1 종오리 사육물량을 PS로 대체하기 위한 종오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종오리 수입 마리수는 72만 마리(전년 대비 71.5% 증가)였으며, 사육 마리수 증가에 따라 2011년 사료 생

산량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6만 6천 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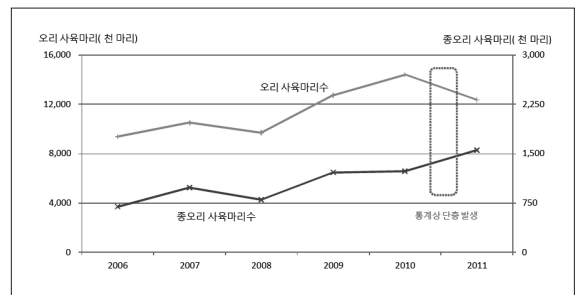


그림 26-38. 오리 및 종오리 사육 마리수

주: 2006~2010년은 해당년 12월 사육 마리수(농림수산식품부, 기타 가축통계)이며, 2011년은 연평균 사육 마리수(통계청, 가축동향)이므로 통계상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기타가축통계」, 통계청 『가축동향』

■ 오리고기 수급 동향

- 도매 마리수 증가로 2011년 오리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3만 2천 톤, 수입량은 5,964톤으로 추정된다.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1인당 소비량은 전년 대비 20.8% 증가

한 2.9kg으로 추정된다.

■ 오리고기 가격 동향

○ 2011년 초 HPAI 발병에 따른 매몰처분으로 종 오리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병아리 생산 및 사육 마리수가 감소하면서 오리고기 가격은 5월 10,248원/3kg까지 상승하였다.

○ 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압 마리수는 6월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도압 마리수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산지가격은 2011년 6월 이후 약세가 유지되었다. 2012년 1월(1~27일) 평균 오리가격은 5,534원/3kg이다.

○ 이는 사육 마리수 증가로 오리고기 공급량은 늘어난 반면, 복절기 호우 및 기상악화에 따른 여름철 소비 감소, 하반기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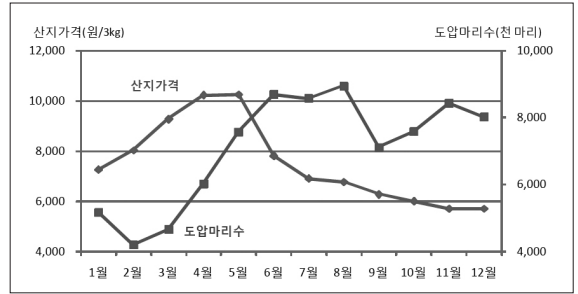


그림 26-39. 2011년 오리 산지가격 및 도압마리수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오리협회

■ 오리고기 소비 동향

○ 현재 가정 내에서 오리고기 소비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26.3%가 요리가 다양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리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20.9%가 오리가격이 타 육류에 비해 비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9.6%의 응답자는 현재 유통되는 오리고기의 양이 적당하지 않다(판매 중량이 너무 큼)고 응답하였으며, 17.2%는 오리고기 구입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표 26-36. 오리고기 수급동향

단위 : 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공급	생산	60,209	75,270	84,818	102,597	115,204	132,126
	수입	83	1,570	338	34	2,395	5,964
	계	60,292	76,840	85,156	102,631	117,599	138,090
수요	소비	59,933	76,818	85,156	102,629	117,324	137,631
	수출	359	22	0	2	275	459
	계	60,292	76,840	85,156	102,631	117,599	138,090
1인당 소비(kg)		1.2	1.5	1.8	2.1	2.4	2.9

주 : 2011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이며, 2011년 수입량은 정육·지육 및 열처리 가공품 포함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따라서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증진을 위해 오리고기 요리법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급과 함께 현재 지육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오리고기를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부위별로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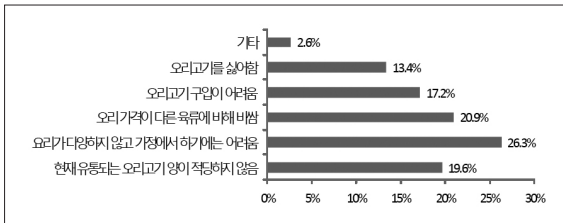


그림 26-40. 가정내 오리고기 소비 부진 원인

자료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2012년 1월 6~9일)

◎ 오리고기 교역여건 전망

○ 우리나라의 오리고기 자급율은 95% 이상으로 국내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도 소폭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대만산 오리고기는 주로 정육형태로 수입되며, HPAI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중국산은 열처리 가공육(훈제) 위주로 수입되고 있다.

○ 2011년 오리고기 수입량 1,113톤 중에서 대만산은 전체 수입량의 97.2%인 1,082톤이었으며, 그 외 미국과 프랑스산이 소량 수입되었다.

○ 현재 오리고기 관세율은 18~22.5%이나, 한·미 FTA 발효로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2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또한 한·EU FTA 발효로 냉장육은 10년, 냉동육은 1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 오리 사육과 오리고기 수급 전망

○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 원종오리 농장에서

표 26-37. 국가별 오리고기 수입량 및 점유율

단위: 톤

	대만		미국		프랑스		전체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수입량	점유율
2009	76	79.8%	9	9.8%	9	9.4%	96	100.0%
2010	320	87.9%	9	2.6%	15	4.2%	365	100.0%
2011	1,082	97.2%	14	1.3%	17	1.5%	1,113	100.0%

자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 26-38. FTA별 오리고기 관세 변화 내용

품목	현행 관세율	한·미 FTA		한·EU FTA	
		냉장육	냉동육	냉장육	냉동육
오리고기	18~22.5%	10년 철폐	12년 철폐	10년 철폐	13년 철폐

자료 : 외교통상부

| 집중탐구 |

종오리가 공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종오리 수입실적은 올해보다 감소한 26만 마리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적인 종오리 공급 규모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 종오리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296만 마리로 전망된다. 또한 현재 냉동비축물량(1,200~1,500만 마리, 업계추정)이 많아 오리 고기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증가에 따라 2012년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8.9% 하락한 6,000~6,200원으로 전망되며,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3.0kg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적으로 소득 증가 및 오리고기 선호로 오리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1,398만 마리, 2022년 1,478만 마리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생산량은 2017년 14만 9,158톤, 2022년 15만 6,947톤으로 예상된다.
- 생산량 증가에 따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17년 3.1kg, 2022년 3.3kg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지가격은 2017년 7,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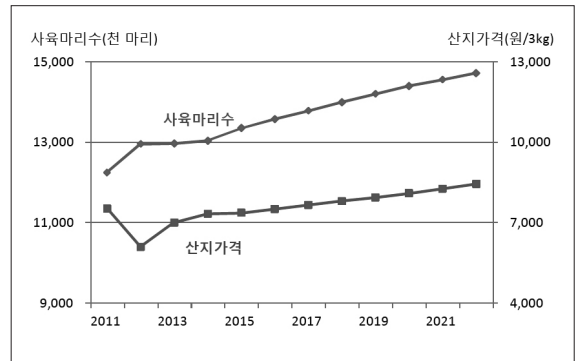


그림 26-41. 오리 사육 마리수와 가격 전망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KREI-KASMO 2011)

원/3kg에서 2022년 8,326원/3kg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하반기부터 오리 산지가격은 생산비 이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냉동비축물량 및 오리고기 생산량이 많아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계열업체에서는 일정물량을 자율 감축하여 산지가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 또한 오리 사육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F1 종오리 입식 및 사육을 근절해야 하며 지나친 병아리 입식을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6-39. 오리고기 수급전망

	단위	2011	2012	2017	2022
사육 마리수	천 마리	12,240	12,964	13,980	14,776
생산	톤	132,126	139,217	149,158	156,947
수입	톤	5,964	5,577	3,590	3,988
1인당 소비량	kg	2.9	3.0	3.1	3.3
산지가격	원/3kg	7,527	6,000~6,200	7,569	8,326

주: 수입량은 정육·지육과 열처리제품의 합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전망치(KREI-KASMO 2011)